

# 육아정책 Brief

통권 제 06호 | 발행인: 이영 | 발행일: 2012년 08월 01일 | 발행처: 육아정책연구소

08 August

## 자녀양육 지원,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

### I. 양육지원 다양화의 필요성

양육지원이 종일  
보육서비스로 쏠림이  
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 
확대되고 있음.

- 0-2세 무상보육 정책으로 많은 영아가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면서 재정 부족 문제와 더불어 양육지원이 종일 보육서비스로 쏠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.
  - ▶ 어린이집 대기 아동수가 급증하면서 정작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취업모의 아동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.
  - ▶ 보육수요 급증은 지방정부 분담금의 부족 현상을 야기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무상 보육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지방정부가 나타나고 있음.

양육지원정책이  
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 
제대로 반영하지 못함.

- 이러한 사태는 양육지원정책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임.
  - ▶ 보육서비스는 종일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부모들의 다양한 근로 유형 및 근무시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, 종일제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음.
  - ▶ 재정 지원도 보육비용 중심으로, 보육서비스 대체 양육수당은 저소득 가구에 한정되어 있음.
  - ▶ 젊은 부모들이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 역할을 학습하기 어려우나 부모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, 정보가 홍수를 이루지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찾기를 도와주는 체계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.
- 영유아 부모의 양육 애로와 실질적 지원 요구를 구체화하여 종일 돌봄 서비스 이외의 수요자 친화적인 정책 대안을 제언하고자 함.

### II. 양육 애로와 정책적 대응

#### 1. 어머니의 양육 애로

양육스트레스 중  
양육비용과 육아정보  
선택에 대한  
스트레스가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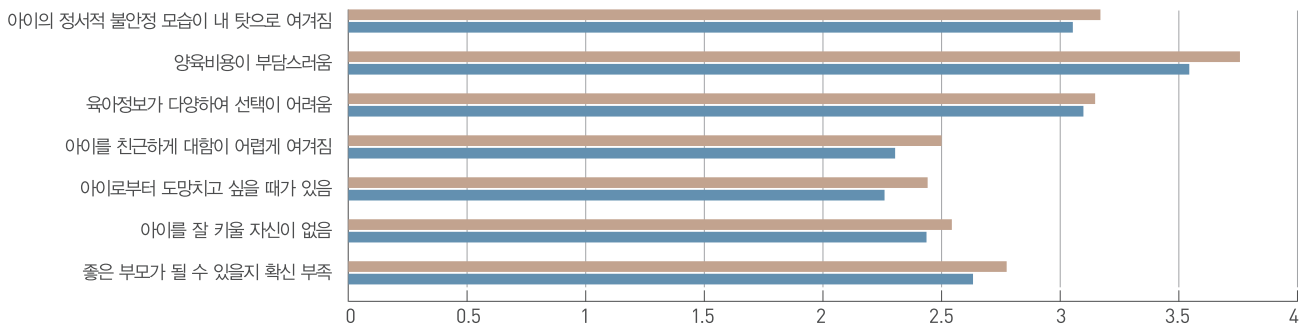
- 영유아기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(그림 1 참조).
  - ▶ 2010년 아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, 양육비용과 육아정보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음.



- 육아용품, 장난감, 도서 등 자녀양육 시 필요한 물품 마련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됨.
- 육아정보를 비롯한 정보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, 또 부모 자신의 정보습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임.

종일 영유아 자녀와 함께 지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음.

- ▶가정에서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면서 종일 영유아 자녀와 함께 지내는 일하지 않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음.
- 일하지 않는 어머니 경우 영유아 자녀로 인해 외출이 어렵고, 친구나 친지 같은 사회관계로부터 소원해지면서, 자녀양육 상황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기 쉬움.
- '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' 문항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, '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', '아이를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' 등의 문항에 대해 일하지 않는 어머니의 응답이 높음.



주: 육아정책연구소의 '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'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임. ■ 미취업 어머니 ■ 취업 어머니

[그림 1]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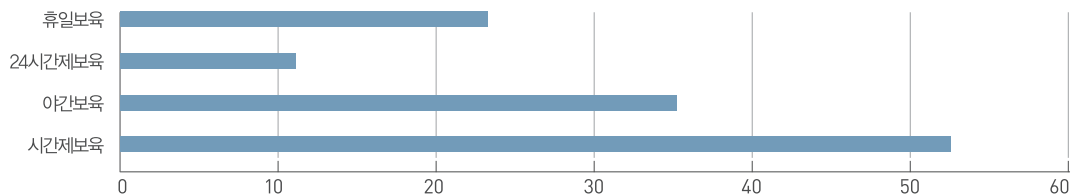
## 2.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

미비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, 육아 관련 정보, 부모-자녀 참여 활동 프로그램,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음.

- 종일제 보육서비스 이외에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, 부분적으로는 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, 육아 관련 정보 제공, 부모-자녀 참여 활동 프로그램 제공,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추진되고 있음.
-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추진됨.
  - ▶ 현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대부분이 주 5일 동안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종일제 보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이용하기가 어려움.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.
  - ▶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특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.
    - 서울형 어린이집과 365열린 어린이집, 각 구에서 운영하는 총 23개 영유아플라자(육아지원센터) 중 12개 시설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.
    -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한 예약 체계를 구축하여 부모 편의의 기관 운영 효율을 도모함.

2009년 보육실태조사  
부모조사 결과에 따르면  
시간제 보육에의 요구는  
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▶ 아이돌보미사업으로 파견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, 사회적 기업 YMCA ‘아가야’(전국 9개소)에서도 공간 및 파견 시간제보육을 제공함.
- ▶ 다양한 서비스 중 시간제보육에 대한 수요는 높음.
  - 2009년 보육실태조사 부모조사 결과에 따르면, 야간보육, 휴일보육, 24시간 보육, 시간제 등의 취약 보육 중 시간제 보육에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

자료: 서문희 외(2009),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, 보건복지부.

[그림2] 종일 보육 이외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모의 요구

- ▶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시간제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.
  - 일본은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돕는(refreshment) 보육으로 시간제보육을 발전시켜왔음.
  - 프랑스도 시간제노동, 유연근무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는 시간제 일시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에는 시간제보육 버스를 운영하기도 함.
-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.
  - ▶ 보육정보센터, 아이사랑 포털,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 등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.
    -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는 파워 블로거의 홈페이지나 카페 같은 인터넷 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 그 정보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.
-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체험시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함.
  - ▶ 주거공간의 변화로 마당이나 놀이터 같은 놀이 공간이 부족하여 어머니들이 자녀와 함께 활동하며 양육부담을 덜고 상호작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음.
  - ▶ 현재 영유아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장난감 및 도서대여, 놀이공간 제공, 육아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설치와 이용에 지역 간 편차가 큼.
    - 전국 64개 보육정보센터 중 서울 26개, 인천 3개, 경기도 16개 등 45개가 서울 및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음.
- 영유아기 부모는 부모교육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만 실제 부모교육 기회는 부족함.
  - ▶ 영유아기는 그 부모에게도 ‘부모’라는 새로운 지위에 따른 적절한 역할을 익히는 적응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부모의 역할을 배울 기회를 찾기 힘들.

부모교육 필요성을 강하게  
느끼지만 실제 부모교육  
기회는 부족함.

- 유아교육진흥원, 보육정보센터, 영유아플라자,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,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을 통한 부모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요에 비해 기회가 제한적임.

▶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,0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<sup>1)</sup>에서 응답부모의 92.8%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, 실제 부모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26.4%에 불과함.

### Ⅲ. 양육지원 개선방안

정보 제공, 부모 자녀간·부모간 상호작용 공간의 확대, 부모교육 강화 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담은 포괄적 양육지원이 마련되어야 함.

- 종일제 돌봄 서비스나 비용 지원 이외에 질 높은 육아관련 정보 제공, 부모 자녀간·부모간의 상호작용 공간의 확대, 부모교육 강화 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담은 포괄적 양육지원이 마련되어야 함.
- 보육정보센터를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 양육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함.
  - ▶ 부모가 이용 가능한 지원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함.
  - ▶ 영유아와 그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체험시설을 마련하여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지원함.
  - ▶ 어머니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, 자녀와 함께 모여 고립감을 해소하고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.
- 영유아 부모가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시간 운용을 다양화함.
  - ▶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시간 정규 보육, 야간 보육 등 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부모 선택권을 넓혀야 함.
  - ▶ 시간제 일시보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여 긴급한 상황 뿐 아니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보육으로 느끼도록 해야 함.
    - 일시보육 어린이집을 거점형으로 설치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의 시간제 보육기능을 강화함.
    -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은 과도하게 이용되는 영아 종일 보육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음.
-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을 키우고 지원해 줄 부모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부모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, 온라인교육 같은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함.
- 영유아 부모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함.

1) 김은설·장혜진·김문정·Susan W.(2011).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. 육아정책연구소.